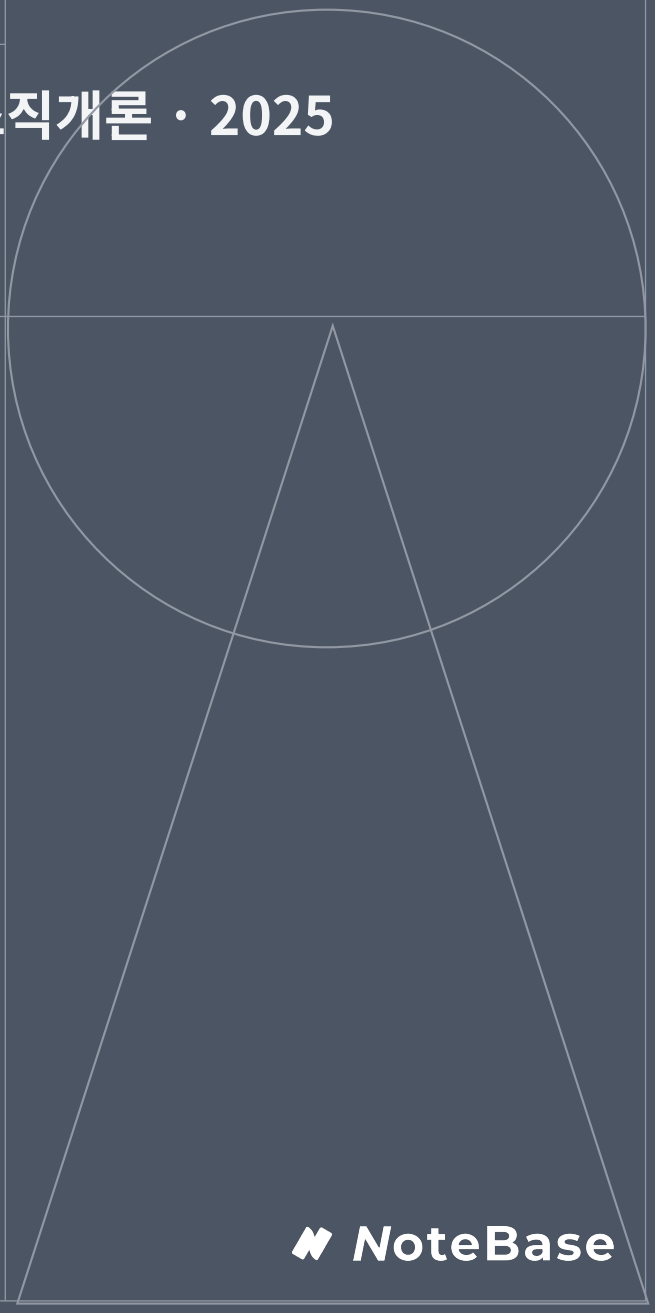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법원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법원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5

공무원/법원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5

문 1. KDC 6판의 조기표, NDC 10판의 일반 보조표와 고유 보조표, DDC 23판의 보조표에 관해 비교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교에 관련된 보조표는 KDC 6판 조기표에서 '종교공통구분표', NDC 10판에서 고유 보조표, DDC에서 'T5: Ethnic and national groups'가 있다.

② 주제의 서술 형식 구분으로 작성되어 '철학과 이론'이 포함된 보조표는 NDC 10판 일반 보조표에서 'ㅣ 형식 구분 -01', KDC 6판 조기표에서 '표준구분표 -01', DDC 23판 Table에서 'T1: Standard Subdivisions -01'에 해당한다.

③ DDC 23판 'T3: Subdivisions for Arts, for Individual Literatures, for Specific Literary Forms'와 동일한 적용 범위의 보조표는 KDC 6판 조기표에서 '문학형식구분표'로, NDC 10판에서는 고유 보조표에서 '문학공통구분'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KDC 6판 조기표에서 '국어구분표'에 해당하는 보조표는 DDC 23판의 'T6: Languages'로, NDC 10판은 일반 보조표가 아닌 고유 보조표 '언어공통구분'에 포함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DC 6판의 조기표, NDC 10판의 일반·고유 보조표, DDC 23판의 보조표가 각각 어떤 주제나 형식을 세분하는지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DC 조기표: 본표의 분류기호에 결합하여 지역·언어·문학형식·종교공통구분 등을 세분하는 보조표이다.
NDC 보조표: 여러 주제에 공통으로 쓰는 일반 보조표와 특정 주제에만 쓰는 고유 보조표로 구분된다.
DDC 보조표: T1은 표준구분, T3은 예술·개별 문학·특정 문학형식의 세분, T5는 민족·국민 집단, T6은 언어를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DDC의 'T5: Ethnic and national groups'를 종교 관련 보조표로 대응시킨 부분이다. T5는 민족·국민 집단을 나타내는 보조표이므로 종교공통구분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DDC T5는 민족·국민 집단을 세분하는 표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O — NDC의 형식 구분 -01, KDC의 표준구분표 -01, DDC의 T1 표준구분 -01은 모두 주제를 철학·이론이라는 서술 형식으로 세분하는 데 대응한다.
③ O — 문학 및 문학형식의 세분이라는 관점에서 DDC T3은 KDC의 문학형식구분표, NDC 고유 보조표의 문학공통구분과 대응한다.
④ O — 언어 세분 보조표는 KDC의 국어구분표, DDC의 T6 Languages, NDC 고유 보조표의 언어공통구분으로 대응한다. NDC의 언어공통구분은 일반 보조표가 아니라 특정 주제에 적용되는 고유 보조표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KDC와 NDC의 종교 관련 명칭을 먼저 제시한 뒤 성격이 전혀 다른 DDC T5를 끼워 넣었다. DDC의 T5에서 Ethnic and national groups라는 영문 표제를 확인하면 종교가 아니라 민족·국민 집단임을 판별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분류표의 번호나 명칭을 먼저 '형식·문학·민족·언어'라는 기능으로 바꾼 뒤 대응 관계를 확인한다. 특히 DDC는 T1=표준구분, T3=문학형식, T5=민족·국민 집단, T6=언어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DDC 보조표는 T1 표준, T3 문학, T5 민족, T6 언어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2.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명확하고 구조화된 의미표현을 제공해 주는 공통의 기술언어로 XML을 사용하며, 데이터 모형, 데이터의 상호교환을 위한 구문, 개체별 속성, 개체 간의 관계, 스키마 모형, 프로파일 프로토콜 등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② RDF 트리플 서술문은 구문(syntax), 구조(structure), 의미(semantics) 3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③ 이질성이라는 문제 해결과 상이한 메타데이터로 기술된 웹 자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구조적인 상호운용성을 위한 의미적 표현 도구로 제안되었다.

④ 진화된 서지적 도구로서 AACR의 전통과 메타데이터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목록원칙, FRBR과 FRAD 개념모형에 근거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RDF의 제안 목적과 기본 데이터 모형을 XML, RDA 등 인접 개념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는 웹 자원에 관한 정보를 주어-술어-목적어의 트리플로 표현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연결하고 의미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모형이다.
RDF와 XML의 결정적 차이는 RDF가 자원 간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인 반면, XML은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표현하는 문법이라는 점이다. RDF 데이터는 XML 형식으로 직렬화할 수도 있지만 XML 자체가 RDF의 데이터 모형은 아니다.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는 국제목록원칙과 FRBR·FRAD 계열 개념모형을 바탕으로 개발된 목록규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RDF를 XML이라는 공통 기술언어 및 여러 프로토콜 요소의 집합으로 설명한 부분이 부정확하다. 올바르게는 RDF는 주어-술어-목적어 트리플로 자원과 그 관계를 표현하는 데이터 모형이며, XML은 RDF를 기록하는 여러 직렬화 형식 중 하나이다.
② X — '구문, 구조, 의미'가 RDF 트리플의 세 요소라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RDF 트리플은 주어(subject), 술어(predicate), 목적어(object)로 구성된다.
③ O — RDF는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체계에서 생기는 이질성을 줄이고, 웹 자원 사이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표현하여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틀이다.
④ X — AACR의 전통, 국제목록원칙, FRBR·FRAD 개념모형에 근거한 진화된 서지 기술 규칙이라는 설명은 RDF가 아니라 RDA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RDF는 웹 자원의 의미 관계를 트리플로 기술하는 데이터 모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RDF가 XML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XML과 RDF를 같은 층위의 개념처럼 섞었고, ②는 트리플의 실제 구성 요소 대신 추상적인 용어 세 개를 제시했다. ④는 약어가 비슷한 RDA의 성립 배경을 RDF의 설명처럼 제시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RDF가 나오면 먼저 '웹 자원 간 의미 관계'와 '주어-술어-목적어 트리플'을 확인한다. XML은 표현 문법, RDA는 목록규칙이므로 이 두 설명을 RDF의 정의와 분리한다.

암기 포인트

RDF는 자원 관계를 트리플로, XML은 구조화 문법으로, RDA는 목록규칙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3.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의 조기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어구분은 어느 주제를 특정 언어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을 때 해당 언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데, 특히 700 언어류와 800 문학류에서 개별언어와 개별문학의 기호를 합성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언어공통구분과 문학형식구분과도 조기성을 갖는다.

② 표준구분은 서술형식과 편집 또는 출판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당부분은 총류의 강목과 조기성을 갖도록 되어 있지만 -02만은 조기성이 없다.

③ 지역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은 대체로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지역구분표 -11-79는 대개 910-979에서 9를 생략한 기호와 같은 기호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④ 종교공통구분은 KDC만의 고유한 조기표로 볼 수 있으며, 220-280 요목의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DC 제6판 조기표의 기능과 각 조기표가 본표의 어느 기호와 조기성을 이루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조기성은 같은 개념·형식에 같은 기호를 반복하여 부여함으로써 분류기호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는 성질이다.

핵심 개념

표준구분은 자료의 서술·편집·출판 형식을 나타내고, 지역구분은 주제를 지역별로 세분하며, 국어구분은 주제를 다루는 언어적 측면을 나타낸다. 언어공통구분은 개별 언어의 공통 세목을, 문학형식구분은 개별 문학의 형식을 나타내므로 국어구분과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종교공통구분은 여러 종교에 되풀이되는 공통 세목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국어구분이 특정 언어적 측면을 나타내고 700 언어류와 800 문학류에서 개별 언어·문학 기호 합성의 기초가 된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그러므로 언어공통구분과 문학형식구분과도 조기성을 갖는다’는 결론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국어구분이 700·800의 본표 기호뿐 아니라 총류, 지역구분, 역사류의 일부 항목과도 조기성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② O — 표준구분은 서술형식과 편집·출판형식으로 나눌 수 있고, 그 기호 상당수는 총류의 강목과 조기성을 이룬다. 다만 -02는 총류의 대응 강목과 같은 의미로 구성되지 않아 조기성이 없는 예외이다.
③ O — 지역 세분이 필요한 항목에는 지역구분표에 따른 세분 지시가 제시된다. 지역구분표의 -11부터 -79까지는 대체로 역사류 910부터 979까지에서 맨 앞의 9를 뺀 기호와 대응하여 지역 개념을 반복한다.
④ O — 종교공통구분은 KDC의 특징적인 고유 조기표이며, 220부터 280까지의 여러 종교 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각 종교의 공통 세목을 나타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앞부분의 700 언어류·800 문학류 설명이 옳아서 전체가 맞는 문장처럼 보이게 만든다. 함정은 국어구분의 조기성 대상을 별개의 조기표인 '언어공통구분·문학형식구분'으로 바꾸어 놓은 마지막 문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조기표의 명칭만 보지 않고 '무엇을 나타내는 표인가'와 '본표의 어느 기호가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가'를 나누어 판단한다. 국어구분은 언어의 종류, 언어공통구분은 언어학적 공통 세목, 문학형식구분은 문학의 형식이라는 차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암기 포인트

국어구분은 언어의 종류이고, 언어공통구분은 언어의 공통 세목이며, 문학형식구분은 문학의 형식이다.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 같은 조기표는 아니다.

NoteBase

문 4. 자료분류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열거식 분류표는 분류하고자 하는 지식 전 분야의 각 주제 분야의 기본류와 이들의 포괄적인 관계만을 분류표에 표시하여 분류자가 분류할 때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분류표로, 대표적으로 CC, SC, EC 등이 있다.

② 십진식 분류표는 기호법에 따른 유형으로 지식의 전체를 0에서 9까지 10구분하는 분류표를 말하며, 이들은 기호 구성이 단순하고 조기성이 풍부하고 국제적 통용성이 있다.

③ 열거식 분류표는 분류하고자 하는 지식의 전 분야를 계층적인 체계로 일일이 나열한 분류표로 DDC, NDC, KDC, LCC 등이 있다.

④ 구조원리에 따른 분류표로 지식 세계를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분류표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료분류표를 구조원리와 기호법에 따라 구분하고, 열거식 분류표와 분석합성식 분류표의 특징 및 사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열거식 분류표는 지식의 주제를 미리 계층적으로 전개하여 분류표에 열거한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DDC, NDC, KDC, LCC가 있다.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주제를 여러 패싯으로 분석한 뒤 필요한 개념의 기호를 합성하여 분류기호를 만드는 방식이다. CC가 대표적이며, SC와 EC도 이 계열에 속한다.
십진식 분류표는 사용하는 기호법에 따른 구분으로, 지식 세계를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용해 십진 전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열거식 분류표'라는 명칭이 틀렸다. 기본류와 포괄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분류할 때 주제를 분석·조합하며 CC, SC, EC를 사례로 드는 방식은 분석합성식 분류표이다. 올바르게는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기본 개념과 관계를 제시하고, 분류자가 이를 조합하여 사용한다'이다.
② O — 십진식 분류표는 기호법에 따른 유형으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지식 세계를 10개씩 전개한다. 숫자만으로 기호를 구성하여 단순하고 조기성이 높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쉽다.
③ O — 열거식 분류표는 지식의 전 분야를 계층적 체계에 따라 미리 전개하여 열거한다. DDC, NDC, KDC, LCC는 대표적인 열거식 분류표이다.
④ O — 자료분류표는 구조원리에 따라 지식 세계를 망라하고 각 주제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구이다. 따라서 자료분류표의 일반적 성격을 설명한 진술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분류할 때 조합하여 사용한다'와 CC·SC·EC라는 단서가 모두 분석합성식을 가리키는데, 첫머리만 '열거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③의 실제 열거식 사례와 대조하면 명칭 바꿔치기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가 분류표에 미리 일일이 전개되어 있으면 열거식, 기본 개념이나 패싯을 분석한 뒤 기호를 조합하면 분석합성식으로 판단한다. '십진식'은 구조원리가 아니라 0~9의 숫자를 사용하는 기호법상의 구분이다.

암기 포인트

미리 나열하면 열거식(DDC·NDC·KDC·LCC), 분석하여 조합하면 분석합성식(CC·SC·EC)이다.

NoteBase

문 5. UBC(세계서지제어 ;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서관 간에 목록을 교환하기 위해 서지사항의 기록이나 형식을 표준화하는 활동으로 목록 공유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서지 통제, 서지 조정, 서지 컨트롤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출판물에 대한 서지 사항의 기록, 서지 기술의 표준화 업무 등 서지 작업 전반을 의미한다.

③ ISBD나 MARC, RDA, MODS 등은 UBC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일종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④ 각국의 자국 내의 국가서지제어(NBC)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이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의 서지사항을 그 출판물이 발행될 때 통제함으로 국제적인 통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세계서지제어(UBC)의 핵심인 국가 단위의 신속한 서지 통제와 국제적 이용을 일반적인 서지 통제·서지 표준화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지 통제는 출판물을 식별하고 그 서지사항을 기록·조직하여 검색과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활동 전반이다. 서지 표준화는 서로 다른 기관과 국가가 서지레코드를 교환·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규칙과 데이터 형식을 통일하는 활동이다. UBC는 각국이 국가서지제어(NBC) 체제를 갖추고 자국에서 새로 발행되는 출판물의 권위 있는 서지레코드를 발행 시점에 작성한 뒤 이를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도서관 간 목록 공유를 기본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UBC의 핵심을 잘못 한정한다. 서지사항의 기록과 형식을 표준화하여 목록 교환을 돕는 것은 서지 표준화의 설명이며, UBC는 각국의 국가서지제어를 바탕으로 권위 있는 서지레코드를 국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
② X — 이 선지는 출판물의 서지사항 기록과 서지 기술의 표준화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서지 통제를 설명한다. UBC는 서지 작업 전반을 뜻하는 동의어가 아니라, 각국의 국가서지제어를 토대로 세계적 차원의 서지 통제를 이루려는 구상이다.
③ X — 'ISBD·MARC·RDA·MODS 등이 UBC를 실현하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다. 이들은 각각 서지 기술 규칙, 레코드 형식 또는 메타데이터 스키마 등으로서 서지 표준화와 데이터 호환을 지원하는 수단이며, 그 자체가 UBC의 실현 과정인 것은 아니다.
④ O — 각국이 먼저 국가서지제어 체제를 구축하고, 자국에서 새로 발행되는 출판물의 서지사항을 발행 시점에 통제하여 국제적으로 활용되게 한다는 설명은 UBC의 핵심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목록 공유', ②의 '서지 작업 전반', ③의 '표준·형식'은 모두 UBC와 관련은 있지만 UBC 자체의 정의는 아니다. 관련 수단이나 상위 개념을 UBC의 핵심 정의로 바꿔 놓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각국의 국가서지제어', '자국의 신간 출판물을 발행 시점에 통제', '권위 있는 서지레코드의 국제적 이용'이 함께 제시되는지를 확인한다. 단순한 목록 공유나 표준 형식의 나열만으로는 UBC의 정확한 정의가 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UBC는 '각국의 NBC가 자국 신간을 즉시 통제하고, 그 서지레코드를 세계가 함께 이용한다'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6. 다음 KCR 4판 보유편: 전자책·전자저널 기술규칙 중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간행되는 전자저널(e-journal)의 기술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저널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서지사항을 기술한다.

② 각 서지사항의 식별요소로 국제표준서지기술에서 규정한 구두법을 적용한다.

③ 국제표준서지기술에서 규정한 요소와 순서에 따라 서지사항을 조직적으로 기술한다.

④ 전자저널의 내용과 범위, 다른 자료와의 서지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기술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CR 4판 보유편의 전자저널 기술규칙이 정하는 대상이 서지사항 그 자체가 아니라, 서지사항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서지요소와 그 조직·식별 방법이라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전자저널 기술규칙은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 간행되는 전자저널의 서지사항을 일관되게 기술하도록 필요한 서지요소, 요소의 배열 순서, 식별 구두법 등을 정한 규칙이다. 또한 내용·범위나 다른 자료와의 서지적 관계처럼 기본 서지요소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정보도 기술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전자저널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서지사항을 기술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이 규칙은 개별 전자저널의 서지사항을 직접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저널의 서지사항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서지요소를 규정한다.
② O — 각 서지사항을 구분하고 식별하기 위해 국제표준서지기술에서 정한 구두법을 적용한다.
③ O — 국제표준서지기술에서 정한 요소와 순서에 따라 서지사항을 조직적으로 기술한다.
④ O — 전자저널의 내용과 범위, 다른 자료와의 서지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필요에 따라 기술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의 '서지사항을 기술한다'와 올바른 표현인 '서지사항의 기술에 필요한 서지요소를 규정한다'를 혼동하기 쉽다. 규칙이 정하는 대상과 그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되는 기술 결과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술규칙의 목적을 묻는 선지에서는 규칙이 개별 자료의 서지사항을 직접 작성한다고 표현했는지, 서지사항 작성에 필요한 요소·순서·구두법을 정한다고 표현했는지를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전자저널 기술규칙은 '서지사항을 직접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필요한 서지요소·순서·구두법을 규정'한다.

NoteBase

문 7.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은 DDC의 가장 최신 버전이다. 제23판에서 이루어진 개정과 변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690의 표목을 Construction of buildings에서 Buildings로 변경하였다.

② 760의 Graphic arts를 740으로 이치 및 740의 명칭을 Graphic arts & decorative arts로 변경하였다.

③ 종교(200)의 동방교회를 개정·확장하고, 이슬람 분야도 갱신하였다.

④ 제22판의 ‘Kinds of persons’를 ‘Groups of people’로, ‘Persons treatment’를 ‘Biography’로 변경하여 분류표 전반에 적용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DDC 제23판에서 바뀐 분류표 표목과 용어의 개정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DC 제23판의 개정은 분류 항목의 재배치와 표목 변경, 시대에 맞는 용어로의 수정, 종교 분야의 확장·갱신을 포함한다. 특히 690의 표목은 Buildings에서 Construction of buildings로 바뀌었으므로 변경 전후의 방향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변경 방향을 거꾸로 제시하였다. 690의 표목은 Construction of buildings에서 Buildings로 바뀐 것이 아니라, Buildings에서 Construction of buildings로 변경되었다.
② O — 760의 Graphic arts를 740으로 이치하고, 740의 표목을 Graphic arts & decorative arts로 변경한 것은 제23판의 개정 내용이다.
③ O — 종교 200류에서는 동방교회 관련 내용을 개정·확장하고 이슬람 분야도 갱신하였다.
④ O — 제22판에서 사용하던 Kinds of persons는 Groups of people로, Persons treatment는 Biography로 바꾸어 분류표 전반에 적용하였다.

오답 포인트

①은 두 표목 자체가 모두 실제 용어이므로 익숙해 보이지만,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순서를 뒤집은 선지이다. 이 문항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판본 개정 문제에서는 ‘이전 표목 → 새 표목’의 방향, 분류번호의 이동, 용어의 현대화, 특정 주제의 확장 여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한다. DDC 제23판의 690은 Buildings → Construction of buildings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690은 Buildings → Construction of buildings, 760의 Graphic arts는 740으로 이동, 사람 관련 용어는 Groups of people·Biography로 현대화되었다.

NoteBase

문 8. 다음은 한 권의 단행본을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에 의해 작성한 서지 데이터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KCR	데이터 요소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쉽게 풀어쓴] C언어 express : Visual studio 2017 / 천인국 지음
판사항	제3판 ㉡ 21쇄
발행사항	파주 : ㉢ ㈜ 생능출판사, 2018
주기사항	색인수록
입수조건사항	㉣ 9788970509570 93000 : ₩30000

① ㉠은 본표제 앞에 기재하는 관제로,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서 각괄호([ ])가 아닌 원괄호(( ))로 변경해야 한다.

② 기술대상자료에 표시되어있는 정가와 입수 관련된 어구나 숫자를 그 범위로 작성하고 ㉣에는 ISBN을 작성해야 한다.

③ 발행처명의 앞이나 뒤에 법인 형태 또는 업종명 등을 가르키는 ㉢ ㈜는 식별을 위해 기재해야 한다.

④ 쇄차는 판표시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기에 ㉡은 삭제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CR 제4판에서 관제, 쇄차, 발행처의 법인 형태 표시, 표준번호와 입수조건을 각각 어느 서지기술 요소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제는 본표제 앞에서 표제를 한정하거나 설명하는 말로, 원괄호로 묶어 본표제 앞에 기재한다. 쇄차는 동일 판을 다시 인쇄한 횟수이므로 판표시가 아니다. 발행처명의 법인 형태나 업종을 나타내는 말은 식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한다. ISBN과 같은 표준번호는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에 기재하며, 정가 등 입수와 관련된 숫자나 어구도 이 범위에 기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 ‘쉽게 풀어쓴’은 본표제 ‘C언어 express’ 앞의 관제이다. 관제는 각괄호가 아니라 원괄호로 묶으므로 ‘(쉽게 풀어쓴) C언어 express’로 고치는 설명이 옳다.
② O — ‘₩30000’과 같은 정가는 입수조건사항에 기재하고, ㉣에는 해당 자료의 표준번호인 ISBN을 기재한다. 제시된 ‘9788970509570’은 ISBN에 해당하므로 설명이 옳다.
③ X — 틀린 부분은 발행처명 앞의 ‘㈜’를 식별을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법인 형태나 업종을 나타내는 말은 발행처 식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하므로, 이 자료에서는 ‘㈜’를 삭제하고 ‘생능출판사’로 기재한다.
④ O — ‘21쇄’는 같은 판을 다시 인쇄한 횟수를 나타내는 쇄차이지 새로운 판을 나타내는 판차가 아니다. 따라서 판사항에는 ‘제3판’만 남기고 ㉡ ‘21쇄’는 삭제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실제 자료에 ‘㈜’가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대로 옮겨야 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KCR에서는 발행처의 핵심 명칭과 법인 형태 표시를 구분하며, ‘㈜’와 같은 표시는 식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한다. 또한 ④에서는 ‘판’과 ‘쇄’를 모두 판사항으로 보기 쉽지만, 쇄차는 판표시에서 제외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표시가 자료에 적혀 있는지만 보지 않고 그 표시의 기능을 판단한다. 표제 앞 설명어는 관제로 보아 원괄호, 동일 판의 재인쇄 횟수는 쇄차로 보아 판사항에서 제외, 발행처의 법인 형태 표시는 원칙적으로 생략, ISBN과 가격은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관제는 원괄호, 쇄는 판사항에서 제외, ㈜는 원칙적으로 생략, ISBN·가격은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이다.

NoteBase

문 9. 다음은 3개의 특정 분류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설명에 대한 분류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A] 은/는 서지 분류와 서가 분류를 기호로써 결합하여 일원화한 분류법으로, [A] 은/는 [B], [C] 뿐 아니라 UDC, NDC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 은/는 지식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분류표를 1표에서 7표까지 점진적으로 장서 수의 증가에 따라 점차 전개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되었다.
[C] 은/는 수학의 십진법을 자료분류에 최초로 적용한 십진식 분류표로 [A] 의 영향을 받아 [C] 의 주류를 편성하였다.

① [A] - 노데의 분류법, [C] - CC
② [B] - EC, [C] - DDC
③ [A] - SC, [B] - CC
④ [A] - 해리스의 분류법, [B] - SC, [C] - NDC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분류법의 성립 배경과 전개 방식이라는 단서를 이용해 [A] 해리스의 분류법, [B] 전개분류법(EC), [C] 듀이십진분류법(DDC)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A] 해리스의 분류법: 서지 분류와 서가 분류를 기호로 결합한 분류법이며, 이후 여러 분류법의 주류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B] 전개분류법(EC): 장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제1표부터 제7표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분류법이다.
[C] 듀이십진분류법(DDC): 십진법을 자료 분류에 적용한 분류표이며, 해리스 분류법의 영향을 받아 주류를 편성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를 노데의 분류법, [C]를 콜론분류법(CC)으로 연결한 부분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A]는 해리스의 분류법이고 [C]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이다.
② O — [B]는 7개의 분류표를 장서 규모에 맞추어 전개하는 전개분류법(EC)이고, [C]는 십진법을 최초로 자료 분류에 적용한 듀이십진분류법(DDC)이므로 두 연결이 모두 옳다.
③ X — [A]를 주제분류법(SC), [B]를 콜론분류법(CC)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A]는 해리스의 분류법이고 [B]는 전개분류법(EC)이다.
④ X — [A]를 해리스의 분류법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만, [B]를 주제분류법(SC), [C]를 일본십진분류법(NDC)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B]는 전개분류법(EC), [C]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는 [A]를 해리스의 분류법으로 정확히 제시해 그럴듯하지만, [B]와 [C]의 연결이 모두 틀리다. 이 문제는 한 항목만 맞는 선지가 아니라 제시된 연결이 전부 맞는 선지를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1표부터 제7표까지 장서 증가에 따라 전개’는 EC, ‘십진법을 자료 분류에 최초 적용’은 DDC로 먼저 확정한다. 이어 이 두 분류법 등에 영향을 준 선행 분류법을 해리스의 분류법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해리스는 선행 영향, EC는 1~7표의 전개, DDC는 십진법이다.

NoteBase

문 10.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에 의한 목록 결과 ( )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00	1	▼aDickens, Charles,(ㄱ)812-1870
(ㄴ)	00	▼a어린이 독서지도의 이론과 실제 /(ㄷ) 양재한, ▼e김수경, ▼e정여규, ▼e정영주, ▼e김정미 [공저]
300		▼a녹음 카세트 1개 (40분) :▼b아날로그, 돌비처리 ;▼c8.4 cm(ㄹ)▼e 디스크 2매

① ㄱ: ▼d, ㄴ: 245, ㄷ: ▼d, ㄹ: +

② ㄱ: ▼c, ㄴ: 245, ㄷ: ▼d, ㄹ: ,

③ ㄱ: ▼c, ㄴ: 240, ㄷ: ▼b, ㄹ: ,

④ ㄱ: ▼d, ㄴ: 240, ㄷ: ▼b, ㄹ: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에서 개인명 기본표목, 표제와 책임표시, 형태사항에 쓰는 필드·식별기호·구두점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00 필드의 ▼d는 개인명의 생몰년과 같은 연대를 기록한다.
245 필드는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기록하며, ▼d에는 첫 번째 책임표시를 기록한다.
300 필드에서는 형태사항을 기록하고, 크기인 ▼c 뒤에 딸림자료인 ▼e가 이어질 때 앞에 '+'를 둔다.
따라서 ㄱ은 ▼d, ㄴ은 245, ㄷ은 ▼d, ㄹ은 +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Dickens, Charles, 1812-1870’의 연대는 100 필드의 ▼d에 기록한다.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필드는 245이고, ‘양재한’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책임표시는 ▼d에 기록한다. 300 필드에서 크기 ‘8.4 cm’ 뒤에 딸림자료 ‘디스크 2매’가 이어지므로 구두점은 +이다.
② X — ㄱ의 ‘▼c’와 ㄹ의 ‘,’가 틀렸다. 100 필드에서 생몰년은 ▼d에 기록하고, 300 필드의 딸림자료 ▼e 앞에는 ‘+’를 둔다. 따라서 ‘ㄱ: ▼d, ㄴ: 245, ㄷ: ▼d, ㄹ: +’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ㄱ·ㄴ·ㄷ·ㄹ이 모두 틀렸다. 생몰년은 100 ▼d,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은 245, 첫 번째 책임표시는 245 ▼d, 딸림자료 앞 구두점은 +이다. 따라서 ‘ㄱ: ▼d, ㄴ: 245, ㄷ: ▼d, ㄹ: +’로 고쳐야 한다. 240은 통일표제를 기록하는 필드이며, 245 ▼b는 표제의 나머지 부분에 쓰이므로 이 자리에 맞지 않는다.
④ X — ㄴ의 ‘240’과 ㄷ의 ‘▼b’가 틀렸다. 이 행은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이므로 245 필드이고, 첫 번째 책임표시 ‘양재한’ 앞에는 ▼d를 쓴다. 따라서 ‘ㄱ: ▼d, ㄴ: 245, ㄷ: ▼d, ㄹ: +’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245의 ▼b와 ▼d를 혼동하거나, 300 필드의 ▼c와 ▼e 사이를 쉼표로 처리하기 쉽다. ▼b는 표제의 나머지 부분, ▼d는 첫 번째 책임표시이며, 딸림자료는 ‘+ ▼e’로 연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주변의 실제 데이터 성격을 먼저 본다. 생몰년이면 100 ▼d, 표제·저자표시 행이면 245와 첫 책임표시 ▼d, 크기 뒤 딸림자료이면 + ▼e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몰년은 100 ▼d, 표제·책임표시는 245, 첫 책임표시는 ▼d, 딸림자료는 + ▼e이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특정 분류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해당하는 분류법 명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EC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개한 분류법으로 학문에 대응하는 주제를 알파벳문자로 배정하되 새로운 주제가 나타날 것에 대비할 목적으로 I, O, W, X, Y는 공기호로 남겨두었다.

학문의 체계에 따른 전개라기보다 장서 구성에 따른 편리 위주와 도서관의 실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주제별로 분책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① SC(Subject Classification)
② UDC(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③ CC(Colon Classification)
④ LCC(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분류법의 성립 배경, 기호 체계, 편성 원칙, 개정 방식을 대표 분류법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EC의 직접적 영향, 알파벳 대분류, 공기호 I·O·W·X·Y, 실용성 중심의 전개, 주제별 분책 개정은 LCC를 가리킨다.

핵심 정리

SC: 제임스 더프 브라운이 고안한 주제분류법으로, 관련 주제를 한곳에 모으는 주제 중심의 배열을 지향한다.
UDC: DDC를 바탕으로 발전한 국제적 분류법으로, 숫자와 각종 보조기호를 결합하여 복합주제를 세밀하게 표현한다.
CC: 랑가나단이 고안한 분석합성식 분류법으로, 주제를 패싯으로 분석한 뒤 결합하여 분류기호를 구성한다.
LCC: 미국 의회도서관의 장서와 실무를 중심으로 발전한 분류법으로, EC의 영향을 받은 알파벳식 대분류와 주제별 분책·개정이 특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SC는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이므로 제시된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연결은 'EC의 직접적 영향과 I·O·W·X·Y의 공기호를 가진 분류법 = SC'이며, 올바르게는 '해당 분류법 = LCC'이다.

② X
UDC는 DDC를 바탕으로 발전하였고 숫자와 보조기호를 조합해 복합주제를 표현하는 분류법이므로 제시된 알파벳식 대분류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틀린 연결은 '알파벳 대분류와 공기호를 가진 분류법 = UDC'이며, 올바르게는 '해당 분류법 = LCC'이다.

③ X
CC는 랑가나단의 패싯 분석과 분석합성 원리에 기초한 분류법이므로 장서 구성과 실용성을 우선한 LCC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연결은 'EC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전개된 분류법 = CC'이며, 올바르게는 '해당 분류법 = LCC'이다.

④ O
LCC는 EC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고 학문 주제를 알파벳으로 배정하며 I·O·W·X·Y를 공기호로 남겼다. 또한 미국 의회도서관의 실제 장서와 실용성을 중시하고, 주제별로 분책하여 개정한다는 설명과 모두 일치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여러 분류법이 모두 주제를 조직한다는 공통점만 보고 판단하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EC의 직접적 영향', '알파벳 대분류', 'I·O·W·X·Y의 공기호', '주제별 분책 개정'이며, 이 단서들의 묶음은 LCC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법 식별 문제에서는 표기 방식과 성립 배경을 먼저 연결한다. 알파벳식 대분류와 미국 의회도서관의 실용적 장서 전개가 함께 나오면 LCC, 십진기호와 보조기호의 조합이면 UDC, 패싯 분석과 분석합성이면 CC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LCC = EC 영향 + 알파벳 대분류 + I·O·W·X·Y 공기호 + 장서 중심의 실용성 + 주제별 분책 개정이다.

NoteBase

문 12. KDC의 분류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 도서관에서는 361-367 이외의 각종 법령 및 규정을 다룬 저작은 필요에 따라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하고 -022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표준구분은 특수한 지시가 있는 것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표의 전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자관의 분류 방침에 의한 분류기호 전개 자릿수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③ 분류규정은 일관성 있는 분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관의 분류 방침이나 규칙을 공식화, 명문화한 것이다.

④ 일반 규정에서 관점의 경우, 문헌의 주제는 저자가 주제를 다루기 위해 선택한 소재(素材)와 그것을 취급하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형성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DC의 표준구분 적용 원칙과 분류규정의 의미를 구별하고, 잡저 아래 세구분인 -022와 -023의 용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구분은 여러 주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나 관점을 나타내기 위해 본표의 주제기호에 덧붙이는 보조기호이다. -022는 스크랩북·클리핑 등에, -023은 법령 및 규정에 사용한다. 분류규정은 한 도서관이 일관된 분류를 수행하도록 자관의 방침과 규칙을 공식화하여 명문화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022를 부여할 수 있다'이다. 일반 도서관에서 361-367 이외의 각종 법령 및 규정을 필요에 따라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할 때 부가하는 표준구분은 -023이다. -022는 스크랩북·클리핑 등에 해당한다.
② O — 표준구분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필요한 경우 전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기호 전개에서는 자관이 정한 분류기호의 전개 자릿수 제한을 함께 고려한다.
③ O — 분류규정은 분류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관의 분류 방침과 세부 규칙을 공식화하고 문서로 명확히 정한 것이다.
④ O — 관점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르면 문헌의 주제는 저자가 선택한 소재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취급하는 저자의 관점과 결합하여 형성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022와 -023은 모두 -02 잡저 아래의 세구분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법령 및 규정은 -023이고, 스크랩북·클리핑 등은 -022라는 기호 차이가 정답을 가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준구분의 세부기호가 제시되면 먼저 자료의 형식을 확인한다. 법령·규정이면 -023, 스크랩북·클리핑이면 -022로 대응시킨 뒤, 표준구분의 일반 적용 가능성과 자관의 전개 방침을 별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022는 스크랩·클리핑, -023은 법령·규정이다.

NoteBase

문 13. 동서양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서경적지, 규장총목, 사고전서총목은 사부분류법 체계이다.

② EC는 도서관 장서규모에 따라 적합한 분류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③ 해리스(W.T. Harris) 분류법은 DDC 주류 및 강목 구성의 모태가 되었으며, 도서관 실무(자료 배가, 카드목록 배열, 대출과 반납 등)에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접목시킨 최초의 분류법이다.

④ 초조대장목록은 대각국사 의천이 고려와 중국(송), 거란, 일본 등 대승(大乘) 불교권 전체의 장소(章疏)를 수입하여 책자목록과 주제명 목록의 개념으로 편성한 목록으로써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록이며 의천록, 속장목록이라고도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동서양 주요 분류법과 목록의 명칭·편찬자·특징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부분류법은 동양 문헌을 경·사·자·집의 네 부문으로 나누는 전통적 분류체계이다. EC는 커터의 전개분류법으로, 장서 규모에 맞추어 상세 수준이 다른 분류표를 선택하도록 구성된다. 해리스 분류법은 베이컨의 학문분류 순서를 역전하여 전개한 체계로 DDC의 주류 배열에 영향을 주었다. 의천이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불교 경전의 주석서인 장소(章疏)를 정리한 목록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서경적지』, 『규장총목』, 『사고전서총목』은 모두 경·사·자·집을 기본 골격으로 삼는 사부분류법 계통의 목록이다.
② O. EC는 커터의 전개분류법으로, 소규모 도서관용의 간략한 체계부터 대규모 도서관용의 상세한 체계까지 장서 규모에 맞는 분류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③ O. 해리스 분류법은 베이컨식 학문분류를 역전한 배열을 바탕으로 DDC의 주류와 강목 구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도서의 배가·목록 배열·대출과 반납 같은 실무에 연결한 초기의 실용적 분류법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의천이 편성한 목록을 '초조대장목록'이라고 한 것이다. 의천이 고려와 송·요 등에서 수집한 불교 경전의 주석서인 장소(章疏)를 정리한 목록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이며, 이를 의천록 또는 속장목록이라고도 한다. 초조대장목록과 『신편제종교장총록』은 서로 다른 목록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의천의 장소 수집과 의천록·속장목록이라는 설명 자체를 제시한 뒤 그 명칭만 '초조대장목록'으로 바꾸었다. 설명의 대부분이 익숙해 보여 첫 명칭의 오류를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양 목록은 먼저 분류체계와 편찬자를 분리해 확인한다. ‘경·사·자·집’이면 사부분류법, ‘장서 규모별 단계 선택’이면 EC, ‘베이컨 역전·DDC에 영향’이면 해리스, ‘의천·장소·의천록·속장목록’이면 『신편제종교장총록』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의천이 모은 장소의 목록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이고, 의천록·속장목록은 이 목록의 다른 이름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중 듀이십진분류법(DDC) 분류패싯 조합순서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류(000): 학문 → 표현형식 → 언어나 장소

② 사회과학(300): 학문 → 주제와 하위주제 → 지리 및 시대의 세구분 → 표현형식

③ 문학(800): 학문 → 언어 → 문학형식 → 시대

④ 언어(700): 학문 → 주제와 하위주제 → 언어 → 지리구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듀이십진분류법(DDC)은 주류마다 분류패싯의 조합순서가 다르므로, 각 주류의 명칭·기호와 패싯 배열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류패싯 조합순서는 한 주제를 분류기호로 구성할 때 학문, 주제, 언어, 장소, 시대, 표현형식 등의 요소를 배열하는 순서이다.
총류(000)는 학문 → 표현형식 → 언어나 장소, 사회과학(300)은 학문 → 주제와 하위주제 → 지리 및 시대의 세구분 → 표현형식, 문학(800)은 학문 → 언어 → 문학형식 → 시대의 순서로 조합한다. 예술은 700, 언어는 400에 배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총류(000)의 조합순서는 학문 → 표현형식 → 언어나 장소이므로 옳다.
② O — 사회과학(300)은 학문과 세부 주제를 먼저 정한 뒤 지리·시대를 세분하고 표현형식을 결합하므로 옳다.
③ O — 문학(800)은 학문 → 언어 → 문학형식 → 시대의 순서로 전개하므로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언어(700)'이다. 700은 예술의 주류이고 언어의 주류는 400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예술(700): 학문 → 주제와 하위주제 → 언어 → 지리구분'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패싯 배열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주류 명칭과 분류기호를 바꾸어 놓았다. '언어'라는 말에 끌려 배열만 검토하면 700이 예술이라는 핵심 오류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류 명칭과 백 단위 기호의 연결을 확인한 다음 패싯 조합순서를 검토한다. 명칭과 기호가 어긋나면 배열이 그럴듯해도 틀린 선지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400은 언어, 700은 예술, 800은 문학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목록(편목)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각 목록규칙에 대한 설명과 명칭을 가장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 은/는 저자명기본표목의 원칙을 채택한 최초의 목록규칙이다.
㉡ 은/는 AA Code의 한계점을 개정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나, 예외 규칙이 많으며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은/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조한 규칙으로 저자명, 표제, 주제명을 한꺼번에 자모순으로 배열하여 접근점을 다양화하였다.
㉣ 은/는 최초의 국제적 목록규칙으로, 총 174개의 조문 중에서 8개의 조문은 양국이 각각 자국에 맞도록 규정하였다.

① ㉠ 파니찌 목록(편성)규칙, ㉢ AACR(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② ㉡ ALA 목록규칙, ㉣ AA(Anglo-American) Code
③ ㉢ 커터의 사전체 목록(편목)규칙, ㉣ AACR(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④ ㉠ ALA 목록규칙, ㉡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목록규칙의 명칭을 저자명기본표목, AA Code의 개정, 사전체목록의 배열 방식, 최초의 국제적 목록규칙이라는 핵심 특징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파니찌 목록규칙: 저자명기본표목의 원칙을 채택한 최초의 목록규칙이다.
㉡ ALA 목록규칙: AA Code의 한계를 개정하려고 작성되었으나 예외가 많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커터의 사전체 목록규칙: 이용자의 편의를 중시하여 저자명·표제·주제명을 하나의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였다.
㉣ AA Code: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초의 국제적 목록규칙이며, 174개 조문 가운데 8개 조문은 양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달리 규정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을 파니찌 목록규칙으로 연결한 것은 맞지만, ㉢을 AACR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은 저자명·표제·주제명을 한꺼번에 자모순으로 배열한 커터의 사전체 목록규칙이다.
② O — ㉡은 AA Code의 한계를 개정하려 했으나 예외가 많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은 ALA 목록규칙이고, ㉣은 174개 조문 중 8개 조문을 영국과 미국이 각각 달리 규정한 AA Code이다. 두 연결이 모두 옳다.
③ X — ㉢을 커터의 사전체 목록규칙으로 연결한 것은 맞지만, ㉣을 AACR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은 AACR이 아니라 AA Code이다.
④ X — ㉠을 ALA 목록규칙으로, ㉡을 RDA로 연결한 두 부분이 모두 틀렸다. ㉠은 파니찌 목록규칙이고 ㉡은 ALA 목록규칙이다. RDA는 자원 기술과 접근을 위한 목록 표준이므로 AA Code의 한계를 개정하려 작성되었다는 ㉡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AA Code와 AACR의 명칭이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①·③처럼 한 쌍만 맞는 선지가 함정이다. 이 문항은 선지에 제시된 두 연결이 모두 옳아야 하므로 각 연결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저자명기본표목 최초는 파니찌, AA Code 개정과 복잡한 예외는 ALA, 저자명·표제·주제명의 단일 자모순 배열은 커터, 최초의 국제적 규칙과 174개 조문은 AA Code로 대응시킨다. 그런 다음 선지의 두 짝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파니찌는 저자명, ALA는 AA Code 개정, 커터는 사전체 배열, AA Code는 국제 공동 규칙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중 커터-샌본 세자리 저자기호법(Cutter-Sanborn Three-Figure Author Table)에 의해 기호를 배정했을 때 옳은 것은?

서명: The Education Research Method
저자: Samuel Anderson (저자가 기본표목이 됨)

546 Anderson 547 Anderson, D. 548 Anderson, J. 549 Anderson, M. 551 Anderson, R. 552 Anderson, T. 553 Anderson, W.	187 Sam 188 Samh 189 Samm 191 Samo 192 Samp 193 Sams

① A546t
② S187e
③ A551e
④ S193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본표목인 저자명의 성을 기준으로 커터-샌본표의 번호를 정하고, 서명의 첫 유효어 첫 글자를 소문자로 덧붙이는 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기본표목이 Samuel Anderson이므로 성 Anderson을 먼저 찾는다.
2. Anderson 다음에 이름 Samuel의 첫 글자 S를 반영한다. 표에서 Anderson, S.는 Anderson, R.(551)과 Anderson, T.(552) 사이에 놓이므로 바로 앞 번호 551을 택한다.
3. 서명 The Education Research Method에서는 관사 The를 제외한 첫 유효어 Education의 첫 글자 e를 덧붙인다.

NoteBase

핵심 근거

저자기호의 첫 글자는 저자의 성 Anderson에서 A를 취한다. 표의 왼쪽 열에서 Anderson, Samuel의 배열 위치 바로 앞 항목은 Anderson, R.의 551이므로 저자 부분은 A551이다. 서명기호는 첫머리 관사 The가 아니라 Education에서 e를 취하므로 완성된 기호는 A551e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A546t에서 546은 표의 일반 항목 Anderson에 해당하여 이름 Samuel의 배열 위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t는 관사 The를 취한 글자이다. 올바르게는 Anderson, Samuel의 바로 앞 번호 551과 Education의 e를 결합한 A551e이다.
② X — 표의 오른쪽 열에서 187은 Sam에 해당한다. S187e는 저자의 이름 Samuel을 표목처럼 찾은 결과이지만, 이 문항의 기본표목은 성 Anderson으로 시작한다. 올바르게는 A551e이다.
③ O — 표의 왼쪽 열에서 Anderson, Samuel은 Anderson, R.(551)과 Anderson, T.(552) 사이에 배열되므로 바로 앞 번호 551을 사용한다. 여기에 관사 The를 제외한 Education의 e를 붙이면 A551e가 된다.
④ X — 표의 오른쪽 열에서 193은 Sams에 해당하므로 Anderson을 기본표목으로 한 저자기호가 아니다. t도 관사 The를 잘못 취한 글자이다. 올바르게는 A551e이다.

오답 포인트

Samuel을 먼저 보고 S로 시작하는 번호를 고르거나, 서명의 맨 앞 단어 The에서 t를 취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기본표목의 성 Anderson과 관사를 제외한 첫 유효어 Education을 각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저자기호는 먼저 기본표목의 성을 기준으로 표에서 성과 이름의 배열 위치를 찾고,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없으면 그 이름의 바로 앞 항목 번호를 사용한다. 그다음 서명 첫머리의 관사를 제외하고 첫 유효어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붙인다.

암기 포인트

Anderson, Samuel은 A551, The Education은 e이므로 A551e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메타데이터(metadata) 유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AACR2/MARC Cataloging

② VRA Core

③ METS

④ DCME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원의 내용과 식별 정보를 나타내는 기술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객체의 구성·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 메타데이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술 메타데이터: 자원의 제목, 제작자, 주제 등 자원을 발견하고 식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다. AACR2/MARC Cataloging, VRA Core, DCMES가 여기에 해당한다.
구조 메타데이터: 디지털 객체를 이루는 파일들의 순서, 계층, 연결 관계를 표현한다. METS는 여러 종류의 메타데이터와 파일을 하나의 XML 문서 안에서 연결·포장하며 구조 지도를 제공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AACR2/MARC Cataloging은 서지자원의 표제, 책임표시, 발행사항 등을 기술하고 MARC 형식으로 표현하는 기술 메타데이터 계열이다. 성격이 다른 유형이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기술 메타데이터에 해당한다.
② X — VRA Core는 미술작품·문화유산과 그 이미지의 속성을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이다. 성격이 다른 유형이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자원의 식별과 검색을 위한 기술 메타데이터에 해당한다.
③ O — METS는 디지털 객체를 구성하는 파일과 각종 메타데이터를 XML로 묶고, 파일 사이의 계층과 순서를 구조 지도로 표현하는 표준이다. 다른 세 선지와 달리 구조 메타데이터의 성격이 중심이므로 정답이다.
④ X — DCMES는 제목, 제작자, 주제, 날짜 등 자원의 기본 속성을 기술하는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이다. 성격이 다른 유형이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기술 메타데이터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METS 안에도 기술 메타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METS 자체를 기술 메타데이터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는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표준의 중심 기능을 보아야 하며, METS의 구별점은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연결하고 디지털 객체의 구조를 표현하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제작자·주제처럼 자원의 내용을 설명하면 기술 메타데이터로, 파일의 계층·순서·연결 관계를 표현하거나 여러 메타데이터를 포장하면 구조 메타데이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AACR2/MARC·VRA Core·DCMES는 자원을 기술하고, METS는 디지털 객체의 구조를 묶는다.

NoteBase

문 18.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을 기준으로 분류번호 부여 시 별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증산도 교리

② 한독사전

③ 우편법 이해

④ 스페인어 국제화 정책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KDC 제6판에서 별법은 분류표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양자택일 규정이며, 단순히 다른 분류 위치도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은 본표가 원칙적으로 지시한 분류 위치이고, 별법은 도서관의 장서 구성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 분류표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대체 위치이다. 따라서 주제 간 관련성이 아니라 분류표의 별법 지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증산도 교리는 개별 종교의 교리를 다루는 자료로, KDC의 종교 분야에서 교리를 모으는 방법과 개별 종교 아래에 분산하는 방법 중 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O — 한독사전과 같은 이중언어사전은 표제어의 언어와 대응어의 언어 중 어느 언어 아래에 모을 것인지에 관하여 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도서관이 채택한 방침에 따라 한국어 사전 쪽 또는 독일어 사전 쪽에 일관되게 분류할 수 있다.

③ O — 우편법 해설서는 법률을 중심으로 보면 법학 분야에, 우편 사업의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모으면 우편 분야에 둘 수 있도록 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어느 위치를 택하든 자관의 분류 방침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④ X — '스페인어 국제화 정책'은 스페인어라는 특정 언어명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법을 적용하는 자료가 아니다. 틀린 판단은 이를 별법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자료의 중심 주제인 언어정책·언어계획에 따라 표준 위치에 분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스페인어'만 보고 특정 언어 자료이므로 선택 가능한 분류 위치가 둘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복합적으로 보이는 주제와 별법은 다르다. 별법은 분류표에 양자택일 지시가 있을 때만 성립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자료의 중심 주제를 정한 뒤, KDC 본표나 주기에 대체 분류 위치를 허용하는 별법 지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명시된 선택 규정이 없으면 관련 분야가 여럿 보여도 별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별법은 '관련 주제가 둘'이 아니라 '분류표가 두 위치 중 선택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NoteBase

문 19.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의 리더(Leader)에 기술되는 '레코드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 - 문자자료

② t - 필사문자자료

③ e - 전자자료

④ w - 고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ORMARC 통합서지용 리더의 06자리인 레코드 유형 부호와 자료 유형의 대응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레코드 유형은 서지레코드가 다루는 자료의 주된 유형을 한 글자 부호로 나타내는 리더/06 요소이다. 이 문항에서는 a는 문자자료, t는 필사문자자료, e는 지도자료(구체 포함), m은 전자자료, w는 고서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a는 문자자료를 나타내는 레코드 유형 부호이다.
② O — t는 필사문자자료를 나타내는 레코드 유형 부호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e - 전자자료'이다. e는 지도자료(구체 포함)를 나타내며, 전자자료의 부호는 m이다. 올바르게는 'e - 지도자료(구체 포함)' 또는 'm - 전자자료'이다.
④ O — w는 고서를 나타내는 레코드 유형 부호이다.

오답 포인트

전자자료의 영문 첫 글자를 연상해 e로 판단하기 쉽지만, KORMARC에서 e는 지도자료이고 전자자료는 m이다. 부호는 자료명의 영문 첫 글자만으로 추정하지 않고 정해진 대응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더/06의 자료 유형 부호를 먼저 대응시킨다. 특히 e와 m을 각각 지도자료와 전자자료로 구분한 뒤 나머지 a·t·w의 대응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a 문자, t 필사문자, e 지도, m 전자, w 고서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자료의 기본목록을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KORMARC, 2014년도 개정판) 형식에 따라 목록 레코드를 기술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단, 지시기호 및 띄어쓰기는 제외한다)

표제면	판권지
DDC(23판) 909.04924 유대인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홍익희 지음 행성비	유대인 이야기 초판 1쇄 발행 2013년 1월 20일 초판 4쇄 발행 2014년 2월 10일 지은이 홍익희 펴낸이 림태주 펴낸곳 ㈜행성비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57-1 ISBN 978-89-97131-28-7 (03920) 가격 28,000원 크기 21.4 cm 331 페이지 삽화

① 056 ▼a909.04924▼223

② 245 ▼a유대인 이야기 : ▼b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 ▼d홍익희 지음

③ 260 ▼a서울 : ▼b행성비 ; ▼c2014

④ 300 ▼a331 p. : ▼b삽화 ; ▼c21 cm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표제면과 판권지에 나타난 서지정보를 KORMARC의 필드와 식별기호에 맞게 옮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표제면: 유대인 이야기 / 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 홍익희 지음

판권지: 초판 1쇄 2013년, 초판 4쇄 2014년, 펴낸곳 행성비, 크기 21.4 cm, 331페이지, 삽화

분류정보: DDC 23판 909.04924

NoteBase

핵심 개념

서지레코드는 자료에 표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해당 필드에 기술한다. 245는 표제와 책임표시, 260은 발행사항, 300은 형태사항을 기록하며, DDC 분류기호는 082에 기록한다. 재쇄 연도는 새로운 판의 발행년이 아니므로 초판 발행년을 적용하고, 자료의 높이는 센티미터 미만의 단수를 올려 기록한다.

적용 기준

필드 번호가 정보의 종류와 맞는지, 표제·부표제·책임표시가 각각 올바른 식별기호에 배정되었는지, 발행년과 크기가 목록 규칙에 맞게 기술되었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056은 한국십진분류법(KDC) 분류기호를 기록하는 필드이므로, 자료에 제시된 DDC 23판의 분류기호를 056에 기록한 것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082 ▼a909.04924▼223으로 기술한다.
② O — 245에서 ▼a에는 본표제 '유대인 이야기', ▼b에는 표제관련정보 '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d에는 책임표시 '홍익희 지음'을 기록하므로 제시된 기술이 옳다.
③ X — '▼c2014'가 틀렸다. 2014년은 초판 4쇄의 인쇄 연도이고 판의 최초 발행은 2013년이므로, 올바르게는 260 ▼a서울▼b행성비▼c2013으로 기술한다.
④ X — '▼c21 cm'가 틀렸다. 자료의 실제 높이 21.4 cm는 센티미터 미만의 단수를 올려 22 cm로 기록하므로, 올바르게는 300 ▼a331 p.▼b삽화▼c22 cm로 기술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2014년은 판권지에서 가장 나중에 보이는 연도이지만 초판 4쇄의 인쇄 연도일 뿐이다. 또한 ④의 21.4 cm를 반올림하여 21 cm로 적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올려 22 cm로 적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분류표의 종류와 필드 번호를 대응시키고, 표제면에서는 본표제·표제관련정보·책임표시를 구분한다. 이어 판권지에서는 판의 최초 발행년을 찾고, 형태사항의 높이는 센티미터 미만의 단수를 올려 기록한다.

암기 포인트

DDC는 082, 표제는 245, 발행은 260, 형태는 300이며, 재쇄 연도는 발행년을 바꾸지 않고 높이는 올림 처리한다.

NoteBase

문 21. ISBD(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국의 목록규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접근점과 관련된 사항은 모든 목록규칙이 동일하다.

②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서지 기술(서지 정보) 형식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지침을 마련하였다.

③ UBC(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의 실현 과정과 수단으로, 서지 기록의 기계가독형에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한다.

④ ISBD의 자료 유형별 각종 판이 있으며, 'ISBD(S): 연속간행물용'은 2002년 'ISBD(CR): 계속 자료'에 통합되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ISBD가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대상이 서지기술의 요소·순서·구두점인지, 표목 선정과 같은 접근점까지 포함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SBD는 서로 다른 국가와 언어권에서도 서지기록을 이해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서지기술의 요소, 배열 순서, 식별기호를 표준화한 국제 지침이다. 핵심 적용 대상은 자료의 서지기술이며, 저자명·표제 등의 접근점을 선정하고 형식을 정하는 목록규칙 자체까지 모두 동일하게 만드는 기준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ISBD가 각국의 목록규칙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접근점에 관한 사항까지 모든 목록규칙이 동일해진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접근점과 관련된 사항은 모든 목록규칙이 동일하다'이며, 올바르게는 'ISBD는 주로 서지기술의 형식과 표시를 표준화하고,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각 목록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다.
② O — ISBD는 국가와 언어가 다른 서지기관 사이에서도 서지정보가 통용되도록 서지기술 형식에 관한 국제 표준지침을 마련하였다.
③ O — ISBD는 세계서지통정의 실현을 뒷받침하며, 표준화된 요소와 순서를 사용함으로써 서지기록을 기계가독형으로 변환하고 교환하기 쉽게 한다.
④ O — ISBD는 자료 유형별 판을 두었으며, 연속간행물용 ISBD(S)는 2002년에 계속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ISBD(CR)로 개정·통합되었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각국의 목록규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앞부분 때문에 전체가 옳아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ISBD의 표준화 중심은 서지기술이고, 접근점까지 모든 목록규칙에서 동일하다고 단정한 뒷부분이 틀리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SBD 관련 선지는 '무엇을 기술하는가'와 '어떤 표목으로 검색하게 하는가'를 나누어 판단한다.
요소·순서·구두점·기록 교환은 ISBD의 핵심이고,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까지 세계적으로 모두 동일하다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ISBD는 서지기술의 국제 표준이며, 접근점의 세계적 단일화 규칙은 아니다.

NoteBase

문 22. 다음 도서기호법 중 구조적으로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박봉석의 성별기호표

② 장일세의 동서저자기호표

③ LC 저자기호법

④ 카터(Cutter) 저자기호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도서기호법을 기호의 구성 방식에 따라 열거식과 분석합성식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열거식 저자기호법은 저자명과 그에 대응하는 기호를 표에 미리 전개해 두고 해당 기호를 찾아 쓰는 방식이다. 분석합성식 저자기호법은 저자명의 문자 요소를 분석한 뒤 정해진 규칙과 기호표에 따라 기호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박봉석의 성별기호표, 장일세의 동서저자기호표, 카터 저자기호표는 열거식이고, LC 저자기호법은 분석합성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박봉석의 성별기호표는 성과 그 기호를 미리 대응시켜 놓은 열거식 기호표이므로 구조적으로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열거식 저자기호법에 속한다'이다.
② X — 장일세의 동서저자기호표는 저자명에 대응하는 기호를 표에 미리 전개한 열거식 기호표이므로 구조적으로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열거식 저자기호법에 속한다'이다.
③ O — LC 저자기호법은 저자명의 문자 요소를 규칙에 따라 분석하고 기호를 합성하는 분석합성식이다. 나머지 세 열거식 기호표와 구조가 다르다.
④ X — 카터(Cutter) 저자기호표는 저자명과 숫자 기호의 대응을 미리 열거한 기호표이므로 구조적으로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열거식 저자기호법에 속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명칭에 '저자기호법'이 들어간다는 공통점만 보면 네 선지를 같은 유형으로 묶기 쉽다. 이 문제의 구별 기준은 명칭이나 사용 대상이 아니라 기호를 표에 미리 열거했는지, 적용할 때 요소를 분석하여 합성하는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저자명과 완성된 기호의 대응표에서 그대로 찾아 쓰면 열거식, 문자 요소와 규칙을 이용해 기호를 만들어 내면 분석합성식으로 판단한다. LC 저자기호법이 보이면 분석합성식으로 먼저 분류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LC는 분석하여 합성하고, 성별기호표·동서저자기호표·Cutter 표는 미리 열거한다.

NoteBase

문 23. 다음 중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을 적용하여 분류기호 부여 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377 대학, 전문, 고등 교육 Higher education
.01-.07 각국의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
「미국 고등교육사」377.042

② 026.1 국가대표도서관 [전 국립도서관]
각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은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영국국가도서관(BL)」026.124

③ 377 대학, 전문, 고등 교육 Higher education
특수주제의 고등교육은 해당주제의 아래에 분류한다.
377.001-.00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
「고등교육사」377.09

④ 050 일반연속간행물
특수주제의 연속간행물은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월간「조선」051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DC 본표의 주기에서 지시한 지역구분과 표준구분을 기본 분류기호에 정확히 합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역구분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나타내는 기호를 본표의 지시에 따라 덧붙이는 방식이다. 표준구분은 형식·관점 등을 나타내는 공통 보조기호이지만, 본표에 합성 범위가 따로 제시되면 그 자릿수와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 문항에서 377은 표준구분을 377.001~377.009의 형태로 세분하도록 명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377의 .01~.07에 각국의 고등교육을 세분하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미국의 지역기호 42를 합성한 377.042가 맞다.
② O — 026.1 아래에서 각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을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하므로 영국의 지역기호 24를 합성한 026.124가 맞다.
③ X — 틀린 부분은 '고등교육사'를 377.09로 분류한 것이다. 377에서는 표준구분을 377.001~377.009로 세분하므로 역사에 해당하는 기호는 377.009가 된다. 올바르게는 '고등교육사 377.009'이다.
④ O — 월간 「조선」은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은 한국의 일반연속간행물이므로 050 아래의 한국 일반연속간행물인 051에 분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에서 표준구분의 역사 기호 09만 보고 기계적으로 377.09를 만들기 쉽다. 그러나 본표가 377.001~377.009라는 합성 형태를 직접 제시했으므로 0을 생략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기호 합성 문제에서는 먼저 해당 본표 항목의 주기를 확인하고,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인지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인지 구별한 뒤 주기에 제시된 자릿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암기 포인트

377의 표준구분은 .01~.09가 아니라 .001~.009이며, 고등교육사는 377.009이다.

NoteBase

문 24. 다음 자료를 MODS(메타데이터객체기술스키마)로 기술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표제면	판권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스티븐 리차드 코비 지음 김경섭 옮김 김영사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초판 발행: 1997년 2월 15일 지은이: 스티븐 리차드 코비 (Stephen Richards Covey) 옮긴이: 김경섭 펴낸곳: 김영사 ISBN 89-349-0314-7 크기 22.4 cm

ㄱ. <name>
<displayForm>Stephen Richards Covey</displayForm>
</name>
ㄴ. <originInfo>
<publisher>김영사</publisher>
</originInfo>
ㄷ. <identifier type="isbn">8934903147</identifier>
ㄹ. <physicalDescription>
<form>22 cm</form>
</physicalDescription>

① ㄱ, ㄷ,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NoteBas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제면·판권지의 서지정보를 MODS의 이름, 발행정보, 식별자, 형태기술 요소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name>은 저자·기여자 등의 이름을 기술하고, 그 아래 <displayForm>에는 화면에 표시할 이름의 완전형을 기록한다.
<originInfo>는 발행처·발행일 등 자료의 발행 및 기원 정보를 기술하며, <publisher>에는 발행처를 기록한다.
<identifier>는 ISBN 같은 표준식별자를 기술하고 type 속성으로 식별자 종류를 밝힌다.
<physicalDescription>에서 <form>은 자료의 물리적 형태나 매체 유형을, <extent>는 수량·크기와 같은 물리적 규모를 기술한다.

보기 판단

ㄱ O: 판권지에 제시된 저자명 Stephen Richards Covey의 완전형을 <name> 아래 <displayForm>에 기록했으므로 옳다.
ㄴ O: 발행처가 김영사이므로 <originInfo> 아래 <publisher>김영사</publisher>로 기술한 것은 옳다.
ㄷ O: ISBN 89-349-0314-7에서 하이픈을 제외한 8934903147을 <identifier type="isbn">에 기록했으므로 옳다.
ㄹ X: 크기 22.4 cm는 물리적 형태를 나타내는 <form>이 아니라 물리적 규모를 나타내는 <extent>에 기록해야 하며, 제시문처럼 22 cm로 줄여서도 안 된다. 올바르게는 <physicalDescription> 아래 <extent>22.4 cm</extent>로 기술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렸고, 옳은 ㄴ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ㄴ과 ㄷ은 옳지만 옳은 ㄱ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X: ㄷ은 옳지만 ㄹ은 틀렸고, 옳은 ㄱ과 ㄴ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④ O: 옳은 보기인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하고 틀린 ㄹ을 제외한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ㄹ의 '크기'를 넓은 의미의 물리적 형태로 생각해 <form>에 넣는 것이 함정이다. <form>은 형태·매체 유형이고, 22.4 cm처럼 수량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은 <extent>이다. 또한 원자료의 22.4를 22로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자료의 정보 성격을 판별한다. 사람 이름은 <name>, 발행처는 <originInfo>의 <publisher>, ISBN은 <identifier>, 크기·수량은 <physicalDescription>의 <extent>에 대응시킨 뒤 값이 원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이름은 name, 발행처는 publisher, ISBN은 identifier, 크기·수량은 extent이다.

NoteBase

문 25.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에 근거하여 기술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술대상자료에 둘 이상의 독립된 총서표제가 있음
英美詩叢書
探究新書 ; 152
英美詩叢書 (探究新書 ; 152)

② 연속간행물에서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책임표시가 축약형으로 되어 있음
협동조합관리 / ILO
주기에 다음과 같이 작성
[완전책임표시: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③ 전자책에 다음과 같이 복수의 발행처가 기재
W.H. Allen
Macmillan
W.H. Allen
Macmillan

④ 기술대상자료가 한글(또는 국한문 혼용)인 간행물에 다음과 같은 표제를 가지고 있음
한글표제 : 한글갈
한자표제 : 正音學
한글갈 = 正音學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독립된 총서표제, 축약 책임표시, 복수 발행처, 한글 표제와 한자 표제의 기술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립된 총서표제는 각각 별개의 총서사항으로 기술한다. 축약된 책임표시는 자료에 나타난 형식을 본문에 옮기고 완전한 형식은 주기로 보완한다. 복수의 발행처는 정해진 발행사항의 구두점으로 구분한다. 한글 표제와 이에 대응하는 한자 표제가 함께 있으면 한자 표제를 대등표제로 보아 등호로 이어 기술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둘 이상의 총서표제가 서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英美詩叢書 (探究新書 ; 152)'처럼 하나의 총서 안에 다른 총서가 딸린 것처럼 기술하면 안 된다. 틀린 부분은 두 총서사항을 중첩한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英美詩叢書) (探究新書 ; 152)'처럼 각각 독립된 총서사항으로 기술한다.

② X
축약형 ILO의 완전한 영문 명칭을 주기하는 원칙 자체는 맞지만,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은 명칭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영국식 철자인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으로 기술한다.

③ X
복수의 발행처를 단순히 줄을 바꾸어 되풀이하는 것은 발행사항의 기술 형식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W.H. Allen / Macmillan'을 구두점 없이 반복한 표현이며, 같은 발행지에 속한 복수의 발행처라면 올바르게는 발행처마다 발행처 앞의 쌍점을 적용하여 ': W.H. Allen : Macmillan'처럼 구분해 기술한다.

④ O
한글 표제 '한글갈'과 한자 표제 '正音學'은 같은 자료에 나타난 서로 다른 문자 형식의 대등표제이다. 따라서 본표제 뒤에 등호를 두어 '한글갈 = 正音學'으로 기술한 것이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완전한 책임표시를 주기한다는 원칙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Labor와 Labour의 차이가 함정이다. ①은 독립 총서를 종속 총서처럼 중첩한 점, ③은 복수 발행처에 필요한 발행사항의 구두점을 생략한 점이 핵심 오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록 기술 문제에서는 내용이 대체로 맞는지만 보지 않고 관계와 구두점을 함께 확인한다. 독립된 총서는 각각 괄호로 분리하고, 대등표제는 등호로 연결하며, 축약어의 완전형은 정확한 공식 명칭으로 보완하고, 복수 발행처는 발행사항의 구두점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독립 총서는 따로, 대등표제는 등호, ILO는 Labour이다.

NoteBase